

미국 해외 긴급재난구호 시스템

1. 해외재난 발생시 정부내 지원업무 총괄, 조정 및 이행 체계

- 국제개발처(USAID)가 총괄기능 수행
 - USAID내 “Bureau for Democracy, Conflict and Humanitarian Assistance” 아래 OFDA(Office of US Disaster Assistance)가 실무부서
- OFDA는 여타 USAID 부서, 국무부, 국방부 등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지원규모를 결정하고 집행
- 참고 : 국무부내 국제재건안정조정관실(S/CRS)은 일반적인 해외 긴급 재난구호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고, 정변, 테러 사태 등 위기상황 발생시에만 전체 미정부의 지원업무를 총괄

2. 해외에 파견되는 긴급구호대 편성 및 파견절차

- 우선 현장조사단(DART: Disaster Assistance Response Team)을 파견, 상황 파악 및 지원필요

사항 파악

- 먼저 현장 인근의 해외 USAID 사무소에서 현장에 직원을 급파하고 필요시 본부에 지원인력을 요청

- DART의 평가에 기초하여 본국에서 긴급구호대 파견(DART는 필요한 구호대 파견과 아울러 전체 지원규모에 대해서도 건의)

- USAID는 매 5년마다 2개의 지방정부 구호대와 협력약정을 맺고, 해외 긴급구호대 파견시 동 인력을 급파(현재 USAID가 약정을 맺고 있는 기관은 Fairfax County와 Los Angeles County 구호대인 바, 해외구호대 파견시 USAID 긴급구호 예산으로 동 기관에 필요 비용 지불)

- 파견되는 구호대는 이미 FEMA(연방재난관리청)에서 특별히 교육된 인력으로 구성

3.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여부 및 피해발생시 보상제도

- OFDA는 필요시 NGO에 예산을 지급하여 특정 원조활동을 하청하고, NGO의 동 업무수행 과정을 모니터링
 - 아울러 필요시 OFDA는 개별적으로 인력을 고용하여 원조활동 수행
- 구호활동 조사 민간인 피해발생시 USAID가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보상하며, 그 외에는 개인 또는 NGO가 자체적으로 위험 부담

4. 해외재난 지원예산 확보 방식

- USAID 내에 국제재난 및 기아원조 예산항목 보유
 - 2004년 551천불, 2005년 309천불, 2006년 235천불 등
- 대형재난 발생시 미정부는 별도로 원조서약(pledge)을 하며, OFDA는 동 의회승인을 얻은 예산을 집행

5. 해외 긴급재난구호 관련법

- 1961년 제정된 “해외원조법(Foreign Assistance Act)” 9장(Chapter 9)에 해외재난구호 관련사항을 명시
 - 동 법에 의거 미 대통령은 USAID 처장을 해외재난원조 특별조정관으로 지정

[자료:주미국 대사관]